

유복자 '뉴턴'·입양아 '잡스'...세상을 바꾼 과학자들의 삶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과학기술과 사회를 만든 사람들

송성수 지음

일반적으로 과학은 어렵다는 편견이 있다. 어려운 용어와 원리 외에도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 또한 사회에 관한 역사다. 사람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가득하다.

16세기-17세기 과학혁명 주역 가운데 갈릴레이를 빼놓을 수 없다. 망원경을 제작해 지동설에 관한 증거를 찾아냈으며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원래는 귀족출신의 장남이었던 그는 당초 수도사를 꿈꿨다. 14세 무렵 수도원에 입문해 그곳에서 생활했다. 수도원에서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심취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 의학부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갈릴레이는 수학과 과학에 더 많은 공부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관련 책들을 읽는 가운데, 젊은 의학도들은 지식보다 자연현상을 보는 태도의 중요성



을 깨닫게 된다. 급기야 갈릴레이는 기존의 학설을 추종하는 교수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고 '논쟁꾼'으로 불리게 된다. 오늘의 기술문명을 만든 위대한 이들을 꼽으려면 과학자들을 빼놓을 수 없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앙투안 라부아지에, 찰스 다윈, 루이 파스퇴르, 토머스 에디슨, 프리츠 하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로버트 오펜하이머, 제임스 왓슨, 스티브 잡스 등이 그들이다. 익숙한 이름도 있고 다소 생소한 과학자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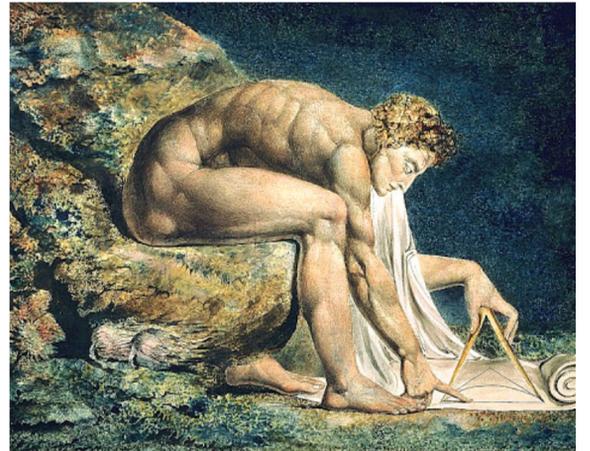
'과학기술과 사회를 만든 사람들'은 역사 속 저명한 과학자들을 다룬 책이다. 과학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과학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인 부산대 교양교육원 송성수 교수는 현재 한국과학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책을 펴냈다.

책에는 모두 11명의 과학자들이 소개돼 있다. 열 및 11명은 축구팀 인원수와 같다. 저자는 '과학 드림팀'을 만든다는 가정 하에 11명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의 일반적인 갈래인 물리와 화학, 생물 등 분야를 안배했고 국적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적절히 배분한 것 같다.

'과학혁명을 완성한 최후의 마술사'라고 규정된 뉴턴은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아주 작았다. 주민들은 그가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할 거라고 봤다. 그



종교재판장에 선 갈릴레오 갈릴레이 모습을 형상화한 로베르 플뢰리 작 '교황청에서의 갈릴레오 갈릴레이'.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뉴턴'은 감성은 박탈당하고 이성만 남은 뉴턴을 신인 유리로 쓴 상징적인 작품이다.

러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그는 84세까지 살면서 인류의 과학 역사를 한차원 업그레이드시켰다.

뉴턴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3개월 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뉴턴이 세 살이 되기도 전에 재혼을 했다. 새아버지는 전남편 자식을 받아들이지 않아 뉴턴은 외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다. 열한 살 때 계부가 죽자 어머니가 있는 농장으로 갔고, 비로소 킹스 스크에 다닐 수 있었다. 그 무렵 그는 기계장치를 고안하거나 자연

현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폭풍이 부는 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 반대방향으로 넓이 뛰기를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또한 자신의 실험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바람의 힘이 주어진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했다.

혁신과 융합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도 있다. 동시대 스타 기업가에 오른 빌 게이츠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잡스는 입양으로 시작된 인생이었다. 그의 양부모는 잡스가 입양됐다

는 사실을 일찍 알려 주었고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를 잘 보듬어주었다. 후일 잡스는 누군가 자신의 부모를 양부모 또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1000퍼센트 제 부모님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밖에 책에는 백신을 개발한 파스퇴르, 분자 생물학의 살아 있는 신화 왓슨, 진화론의 주장자 다윈 등의 삶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유아카데미·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양림동 소녀

임영희 지음

그녀는 양림동의 젊은 시절을 자신의 '전성기'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한다. 원래 그녀의 고향은 광주가 아닌 진도였다. 유년의 시절 광주로 유학을 와 푸른 청춘의 시절인 심대와 이십대를 양림동에서 보냈다.

양림동에는 미션스쿨인 수피아여중과 여고가 있다. 종교시절에는 문학 소녀의 꿈을 키우며 수피아에 내려오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새기곤 했다. 이후 연극 제작 등 문화 활동을 하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1978년 동료들과 여성단체 송백회를 꾸려 간사로 참여했으며 이후 송백회는 5·18 당시 들불야학과 함께 투사회보를 제작하는 등 투쟁에 동참했다.

임영희 작가 겸 연출가가 펴낸 '양림동 소녀'는 격동과 감동의 인생 스토리를 담고 있다. 80년 오월 시민군으로 참여하고 '광대'의 단원으로도 활동했다. 파란의 현대사를 거쳐왔던 그녀는 50대 어느 날,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후유증 탓에 오른쪽 몸이 마비되는 불운의 상황과 맞닥뜨렸지만 대신에 새로운 '언어'를 얻게 됐다. 다음 아닌 외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것. 빼빼물뿔한 그림에는 스스로 자신을 만났던 삶의 기록이 오롯이 배어 있다. 특히 공동체 역사를 바꿔버린 80년 오월의 이야기는 마치 현재진행형처럼 또렷하고 생생하다.

이후 그녀는 작업한 그림을 모티브로 애니메이션 영화 '양림동 소녀'를 연출했다. 영화는 서울독립영화제를 비롯해 광주여성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광주독립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임영희는 고통을 증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만들어낸 '신성한 공동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경험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평했다.

<오월의봄·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흔의 시간

이수진 지음

"마흔. 나답게 살 수 있는 돌도 없는 기회입니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30대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다시 태어난 나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선물하세요. 비로소 시작되는 인생의 황금기, 행복을 쟁취할 시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국내 커뮤니케이션팀을 총괄하며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을 했던 이수진이 쓴 '마흔의 시간'은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려는 마흔의 행복 쟁취기를 담은 자기계발서다.

30대를 온전히 일과 육아에 매달리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던 저자는 문득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공허함과 허무함에 방향한다. 힘겹게 도착한 마흔의 삶이 상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흔의 어느 날, 21년 차 직장인 15년 차 워킹맘 생활을 졸업한다.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며 한 번뿐인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책은 마흔의 고민과 방향, 성장 여정 등이 50가지 이야기로 펼쳐진다. 이제는 40대 후반에 접어드는 저자가 일, 관계, 성장, 삶의 방면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했던 마흔 이전 삶을 반문조사 삼아 마흔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조율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저자는 워킹맘으로 살며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기분,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춰야 했던 사례 등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마흔의 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의 부분과 맞닿아 이해와 공감,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를 펼쳐나가며 해피엔딩을 맞길 응원한다.

<원앤원북스·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나는 소서노다

윤선미 지음

민족의 고대사를 개창한 '소서노'를 잘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녀는 쯤부여의 왕으로 태어나 추모와 함께 고구려를 건국했고, 두 아들과 함께 남하해서 백제를 세운 건국 여제다.

그러나 역사서에서 소서노를 '왕'으로 칭하지 않는다. 그녀는 특유의 모성으로 참다운 지도자들을 배출한 역사의 어머니였으며, 왕도정치와 덕치의 길을 열어낸 참 지도자로 표시된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내이자 백제를 건국한 비류, 온조의 어머니 '소서노'를 다룬 책이 나왔다. 그동안 역사기반 소설인 '살수의 꽃', '여제 소서노' 등을 출간해 온 윤선미 작가가 펴낸 '나는 소서노다'가 바로 그것.

'킹 메이커'로 알려진 소서노에 대해 역사적 자료, 소설적 상상력을 토대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실었다. 그녀가 거쳐 간 홀분 부여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남방의 신생국 서라벌의 등장 및 비류국 송양의 존재, 어라하의 치세까지 혼란스럽던 고대 국가들의 역학 관계를 조명한다.

저자는 소서노를 맹자의 왕도정치를 펴낸 열정의 정치인으로 평가한다. 사리사욕보다 백성을 위한 치세를,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해 왕좌를 내주는 이타심을 가졌던 일화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역사의 뒤꺾에 묻혀 있던 진정한 왕 '소서노'의 정신력을 재평가한다.

책은 오늘날 정치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참다운 지도자란 자신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대중적 이익을, 사사로움 감정보다 공동체의 승리·보전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한편 '나는 소서노다'는 한국 인물 500인을 소개하는 일송북 시리즈로 발간됐다. 소서노 외에도 백석, 퇴계 등 잘 알려진 인물들, 치우천황과 김만덕 등 생소할 수 있는 인물들을 소개 삼는다.

<일송북·1만48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